



김제동 토크 콘서트를 다시 보다

글 · 이필구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팀장

시민교육의 새로운 현장, 김제동 토크 콘서트

작년 12월 초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방송인 김제동이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대학로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노브레이크’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로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가 소극장에서 토크쇼를 한다고 하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새로운 장르인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의 결과는 전 회 매진을 기록하며 연말 공연계의 최대 히트작으로 떠올랐다. 소속사가 공연을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5분 만에 750여 석의 좌석표가 모두 동났다. 여세를 몰아 뜨거운 관심 속에 전국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유명세에 힘을 입어서인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초청되기도 했다.

미국 LA 공연을 마치고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고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사람들이 있어 존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행복하시기를 ……”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케이블 TV 엠넷에 김제동 쇼로 다시 복귀했다.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고, 유명 가수도 나오지 않는 이 공연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소리 없는 성공을 거둔 까닭은 무엇일까? 새로운 형식의 기획, 참여형 공연, 김제동의 입담과 재치 등등 여러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김제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김제동의 이력은 참 특이하다. 문화선전대 출신으로 대구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동하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윤도현 밴드와 만나게 되고, 그 후 방송에

얼굴이 알려졌다. 방송 7년 동안 윤도현의 리브레터, 폭소클럽, 야심만만, 환상의 짝궁들에 출연하였고, 100분 토론에 초청될 만큼 말 잘하는 연예인이라 수식어가 붙었다.

막장 예능에 적응 못해

그런 그도 리얼리티 쇼와 말하는 순서가 공평히 배분되지 않는 가로채기 형식의 토크쇼가 부상하면서, 예능인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밟아야 웃음을 주는 기형적인 방송문화가 만연한 상태에서 구르고, 넘어지고, 고함치고, 춤추고, 사적인 약점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쾌활하게 노출하는 그런 문화에 사실 김제동은 적응하지 못했다. 사회자 김제동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김제동은 웃음을 주는 중에도 농담에서 파생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신경을 쓰고, 의례적인 마무리 멘트도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티가 역력하다. 예컨대 야구의 미덕을 예찬하다가도 배구나 축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한다. 침묵도 표현에 포함시키고 무반응도 반응의 범주에 넣어 사고하려고 애쓴다.

그런 그가 막장 예능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빠르게 진화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 노력도 했지만, 오히려 적응하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2~3% 시청률이 나와도 좋으니 자신을 잃지 않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다.

김제동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김제동이 했던 추모사는 당시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김제동이 노제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다. 말 잘하는 연예인 정도로 알고 있는 시민들의 눈엔 예능인 김제

동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았다.

김제동의 당시 심정을 들어보면 “거기 모이신 분들은 이미 하나가 돼 있고, 저만 섞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로서 슬프시죠? 힘드시죠? 화나시죠? 하는 말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본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겠다. 마이크를 든 건 저지만 말씀은 여러분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고인의 유서만을 들고 무대에 올라갔고, 추모사와 유서에 대한 답사를 현장에서 흐느끼는 참여자들의 심정을 담아서 사회를 보았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회자가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김제동식의 독특한 철학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이크 필요

김제동은 마이크에 대한 자기 철학이 뚜렷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마이크가 많이 모이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힘이 없어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권력과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부터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자에 대한 해석도 재미있다. “제가 사회를 볼 때는 대통령이 와도 순서가 아니면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다스릴 사(司)자, 모임 회(會)자입니다. 사회자는 모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 사용해야 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제게서 마이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관객뿐입니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김제동은 스스로를 ‘웃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웃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병들고 무너지게

시민교육의 현장

때 있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상식이다. 벽 속에서는 어떤 유머도 태어나지 않는다. 창문으로 세상을 관조하면 유머는 없다. 참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발을 디딜 때 유머는 발생한다. 누군가를 웃기고 싶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니까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몸부림하는 증거다. 웃기는 기술은 없다. 진심만 있으면 된다. 유머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토크 콘서트가 소리 없는 성공을 거둔 이유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권력이나 정치에 대해 풍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김제동의 상상력이 프로그램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풀어내는 형식도 관객 참여형 방식이다.

서울 대학로 소극장의 특성상 200석 규모의 객석은 마이크 없이도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리가 가깝다. 이 때문에 관객들이 공연 도중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관객과 소통하는 것에 초점 맞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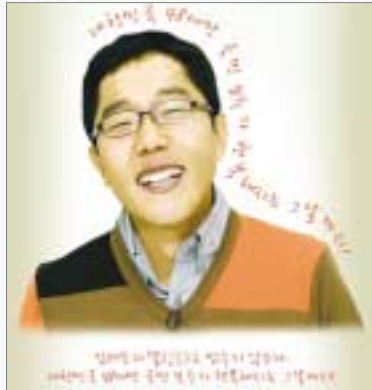
매회 대본 없이 무대에 오른다는 김제동은 “일종의 마당놀이 형식으로 객석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

객들과 서로 투닥투닥하면서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재미”라고 말한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아오면서 받은 작은 탄압, 정치, 다양성, 교육, 외모 등 꺼내놓는 주제가 가볍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매우 자유롭다.

때론 글 한 편, 때론 한두 가지 에피소드로 출발한다. 팀버튼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시작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이어지고, 차이에 주목하지 말고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것 속에 웃음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그는 행사를 열고 닫으며 사이를 메우는 MC인 동시에 스스로 풀어놓을 ‘본론’을 갖고 있는 유창한 이야기꾼이자, 대중 강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읽혀지는 것은 교육 활동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시민교육 기획 진행자의 중요성과 역할」이라는 글에서 교육을 예술로, 교육 진행자를 예술가로 표현했다. 교육은 예술이다. 그리고 정성이다. 교육 진행은 정해진 기술이나 규칙을 수반한 정교한 숙련 작업으로 기획자의 상상 능력이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다.



토크 콘서트가 소리 없는 성공을 거둔 이유는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김제동의 상상력이
 프로그램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성과 진심 담아야

각 프로그램은 사람 중심의 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획자가 감동받지 못하는 교육은 참여자도 감동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기획자가 감동받기 위해서는 과정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나부터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감동, 공감이 없는 교육이나 활동은 그때 잠깐은 반짝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지 못하고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변화를 위한 감동을 주고받는 것, 가슴속에 새로운 미션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고민했는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주민들과의 만남을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서 한다. 또한 모임이 구성되고 지속되는 틀도 교육, 즉 내부 학습체계를 만들 때 가능하다. 그만큼 풀뿌리운동에 있어 교육은 시작이면서 끝이기도 하다. 함께 모여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주민 임파워먼트(empowerment) 형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는 이런 활동가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을 때 감동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를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온다. 바로 다양성이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교육을 “새로 태어난 개인을 ‘특정’ 인간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드가 말한 ‘특정’이란 말을 강조한 것은 사회는 저마다 고유한 환경과 자연 그리고 문화적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에 적합한 교육은 당연히 서로 달라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단 하나의 사회교육 모델이 지구의 모든 곳에 강요되고 있다.

세계화라는 흐름이 당연시 되면서 세계화 경제에서 교육의 다양성 보다는 누구에게나 맞게 만든 기성복 같은 교육 과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산업화된 세계의 보통 어린이가 수백 개의 기업 로고는 구별하면서 자기가 사는 곳의 식물 종은 몇 개밖에 알지 못하거나, 2차 방정식을 쉽게 풀 줄은 알지만 옷에 단추를 달거나 달걀을 부칠 줄은 모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교육, 가치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화



라는 거대 시장경제형 인간을 배양하는 교육에서 지역 사회의 필요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경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깨어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임을 사회 전체가 합의하고, 1950년대부터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스웨덴의 사례는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가치나 행동,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교육과 생활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큰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에서, 모두의 문제와 관심사보다는 자기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이 동네 단위, 마을 단위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싹이 자라기 위해선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시민교육을 다시 생각하자

한 방향으로 흐르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변화의 조건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운동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다. 결국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지향은 인간의 변화와 성장이고, 변화와 성장은 생활가

가치나 행동,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교육과

생활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큰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에서,

모두의 문제와 관심사보다는

자기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세워내는 과정도 지식이 아니라 비전이다. 상황이 스스로 발전되도록 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시민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입형, 학습형 방식의 기존 주민교육의 틀을 벗고 주민 참여형이라는 새로운 틀의 시민교육이 지역으로 마을로 퍼져나가야 한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김제동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유쾌하게, 그러나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품고 다시 시민교육을 이야기합시다. *김제동*